

시연(施連) 칼럼

불사이군不事二君 이신벌군以臣伐君을 놓지 못한 고려의 절신絶臣 송고松皐 선조의 사상

-예의엄치禮義廉恥가 무너진 지금의 정치권에 큰 울림이 될 정신-



글 : 권오신
칼럼니스트

경북 예천군(禮泉郡) 지보면(知保面) 피아골길 가 장 높은 산마루.

살아서도 죽어서도 불사이군(不事二君)과 이신벌군(以臣伐君)을 놓지 못했던 것처럼 구름이 멈추는 영두(嶺頭) 외진 곳에 조부와 아들 손자의 무덤이 무상한 세월을 지키고 있다.

잔디보다 황토가 더 돋보인 무덤 앞엔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의 왕(王)들이 내렸던 그 흔한 추증 비슬도, 시호(諡號, 제왕帝王, 경상, 유현儒賢들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임금에 사후에 내렸던 이름)조차 없는 단순한 묘비가 서 있을 뿐이다. 신도비(神道碑, 제왕이나 종이품 이상의 관직, 학문으로 정신적 지주가 된 유현들의 무덤 길목에 세워진 비석) 하나쯤은 지킴범한테 그마저 없다.

선조 송고공(松皐公)이 잠드신 경북 예천 용궁현 대죽리 염송산 유좌(酉坐,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는 자리)는 한스러웠던 고려말과 조선초기의 관로(官路)와는 달리 구름이 평화롭게 머무는 피아골길 산마루다.

송고(松皐) 선조께서 예천 염송산 대죽리(現 지보면知保面 신풍리新豐里 직동樓洞)에 내려오셨을 시기는 조선 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시기로 고려의 신하로서는 하루하루가 목숨을 위협받는 절박한 세월이었다.

호는 송고(松皐), 휘(諱: 이름)는 초(輶)다.

고려 후기 감찰규정(監察糾正)이었던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과 정철부인 사이에서 여섯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철, 고려 우왕 3년 문과급제,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 고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 태어났으니 두 살 터울로 치면 1363년쯤 낙동강이 굽이치다 큰 물길에 모이는 안동 송천(松川)이나 부친(父親,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 고려高麗 감찰규정監察糾正)이 관직에 있었던 개경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 살이 되기 전부터 학문적 명성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알려진 송고(松皐) 선조(先祖)는 어렸기로 이름난 고려의 문과(文科) 시험에 고려 우왕(禔王) 3년(1377) 20살에 급제를 한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과 비슷한 시기에 소년 급제를 해서 고려의 호족(豪族)과 사대부(士大夫)들을 놀라게 했다.

소년급제(少年及第)로 고향 안동 땅은 물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 동경(東京, 지금의 경주)에서 송고선조(松皐先祖)를 보러거나 서책(書冊)과 책걸이를 얻으러 온 사대부집 자녀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술고 선조를 비롯 셋째 형(兄)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철/ 우왕 3년 1377 급제)과 둘째 형(휘諱, 여도興道/ 감사監司, 급제년도미상)등 일곱 형제 중 삼 형제가 급제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안동에서는 문정공(文靖公) 집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고려 육부(六部)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분도 송고선조(松皐先祖)이었으며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분도 송고선조(松皐先

祖)였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 세종(世宗) 임금 때 좌의정(左議政)이셨던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철)의 고려 말 관직이 왜구(倭寇)의 출몰이 잦았던 의령현감(宜寧縣監)이었다.

예적을 소탕한 공적으로 당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었던 이성계(李成桂)의 칭찬을 받은 고려사(高麗史)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조 송고공(松皐公)은 만형 판도공(版圖公, 휘諱 국책, 경산현령慶山縣令)과 둘째형 감사공監司公(휘諱 여도興道) 셋째 형(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철)보다 고려 육부(六部)에서 학문과 재능을 겸비한 벼슬살이로 관직이 가장 높아 고려 말엔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 고려 육부六部의 수장首長)에 이르렀다.

송고공의 이 같은 관로는 고려말을 뛰어넘지 못하고 부러진다.

고려 우왕(禔王) 14년(1388) 위화도(威化島) 회군(回軍)을 단행한 이성계(李成桂)와 사사건건(事事件件) 부딪치면서 더는 나가지 못하고 고려의 절신 72현이 택한 경기도 광덕산 두문동의 반대 길인 경상도 예천 대죽리를 선택하셨다.

살아생전 피아골길 산마루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죽음이 닥친 그 날까지 이신벌군(以臣伐君)과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놓지 못했다.

가문(家門)을 닫아 버린 거나 같았다.

그렇지만 송고공의 이런 정신은 조선에 들어서 여름 하늘의 별처럼 더 빛나게 된다. 송고(松皐) 선조의 학덕(學德)을 기억했던 이태조(李太祖)와 태종(太宗)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교지를 내렸지만 출사하지 않고 고려의 절신(絶臣)으로 남아 천년을 더 빛낼 명성을 얻었다.

조선 개국 초기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이끔 인재를 찾던 이태조는 두문동 72현 대신 예천 염송산에서 은거 중이었던 송고공(松皐公)을 선택했다.

이태조(李太祖)는 송고공에게 군기소감(軍器少監)을 제수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태조는 두 번째 벼슬로 경상도경자관(慶尚道敬差官, 암행어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조선 초기 때의 어사)을, 두 번째 교지가 거절되자 대호군(大護軍)을, 다음엔 북백(北伯,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을, 그리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까지 다섯 번에 걸쳐 승지를 통해 교지를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를 두고 인재를 아끼는 이태조의 간절한 마음이나 생목숨을 걸고 거절한 송고 선조의 마음이 한치의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인(後人,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했었다.

당시 송고 선조의 곁엔 만형이신 판도공(判圖公, 휘諱 국책, 호조의 국장급 관리, 경산현령)과 매부(妹夫)이신 백죽당(栢竹堂, 휘諱 배상지裴尙志, 두문동 72현, 흥해배씨 안동 임향조, 경광서원 배향)공 등이 머물렀다.

염송산(廉松山)을 송도(松都, 개성의 옛 이름)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염송산(念松山)이라 고쳐 부르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송고 선조의 개경 육부(六部)에서 지냈던 행장과 문집(文集)은 전해지지 않는다. 후일 송고 선조의 맏손자이셨던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이 단종(端宗) 사화에 연루되어서 자진하시던 날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집에 보관했던 서지(書誌)나 유품을 불태워 버렸고 세조(世祖)의 독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손들이 유배를 떠났기 때문이다.

은거의 상징이 된 지금의 절동, 예천(醴泉) 염송산(念松山)

송고 선조는 한양(漢陽)과는 아득히 떨어진 예천군(醴泉郡) 용궁면(龍宮面) 대죽리(大竹里) 염송산을 택한 것은 조선과는 담을 쌓아 버리겠다는 정신이 워낙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염송산을 현 예천군이 피아골로 지명을 정한 것을 보면 얼마나 산골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마을이 생겨서 대죽리로 불려졌다.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이 고려 태조 5년(922)에 이곳과 이웃한 마을을 다녀가신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조계선 어렵게 사는 농부들의 움막을 짓고 분음막(分陰幕)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작은 산마을로 보인다.

후일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과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 다섯 형제가 태어나신 마을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엔 송고 선조가 은거했었던 예천 염송산이 은거지의 상징이 되었으며 개경 인근 두문동(杜門洞) 등 몇 곳이 더 있었다. 두문동의 반대 길, 예천 용궁 대죽리를 선택하신 판사공(判事公) 송고 선조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 형제(兄弟)의 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으로부터 처음엔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을, 두 번째는 함경도 북백(관찰사觀察使) 등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당상관 이상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조선의 왕이 내린 교지(敎旨)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고려의 신하 72명이 택한 개경 인근 광덕산 두문동의 두문불출(杜門不出)을 뛰어넘은 정신이다. 그때마다 함께 대죽리 염송산에 은거하셨던 매부 백죽당(栢竹堂: 배상지裴尙志, 두문동 72현)의 흔들리지 않는 절의가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사복시사(司僕寺事)로 고려 관직을 출발하신 백죽당(栢竹堂) 배상지(裴尙志 1351~1413) 공은 관서로 증직되었으며 사후 후손들이 경광서원(鏡光書院)에 배향했다.

백죽당(栢竹堂)은 목은(牧隱) 문하에서 정몽주(鄭夢周)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등과 비슷한 시기에 수학했으며 한번 목은마음은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후일 흥해(興海) 배씨(裴氏) 안동 임향조가 되셨다.

당시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추밀공파)은 고려 공민왕 원년에 태어나서 조선 태종 9년에 세상을 떠나 두 왕조에 걸친 공신이다. 18살에 문과에 급제해서 공민왕을 놀라게 했으며 처음으로 도입한 입학도설(入學圖說: 그림을 넣어서 설명)로 젊은 유생(儒生)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입학도설’은 후일 ‘천명도설’이 발달이 되어서 ‘퇴계와 고봉’간의 사칠논쟁(四七論爭)을 불러일으키는 단조를 제공하는 등 정도전과 더불어 당대의 성리학(性理學)자로 조선의 기틀을 닦는데 크게 기여한 경세사상가이며 후학들에게 학문적(學問的) 영향력을 크게 남긴 학자였다.

이처럼 역성(易姓)혁명이 일어나도 관직을 쫓는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세상인심이다. 그것도 다섯 차례나 임금이 내린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과 함경도 관찰사(觀察使)란 최고의 벼슬자리를 물리친 절의(節義)는 이신벌군(以臣伐君)과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지 않고 서야 지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수절신(守節臣)이 되신 송고 선조는 당

대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손들이 세세손손 풍요로운 정신적 삶과 가치관(價値觀)을 갖는 길을 선택하셨다.

판사공(判事公) 송고 선조는 고려말까지 여러 직책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 유도회(儒道會)가 지난 2005년 편찬(編纂)한 역대관직해설(歷代官職解說)집에 나온 고려의 직제를 보면 육부(六部)와 삼사(三司), 국자감(國子監), 그리고 좌우윤(左右尹, 종2품)을 거느린 개성부(開城府)의 수장자리는 종일품(從一品) 판사(判事)가 맡았다.

지금으로 치면 개성부(開城府)는 서울 시장, 육부(六部)는 장관을 일컫는다. 마지막 자리는 제용감(濟用監) 판사이셨다.

고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대였다.

고려 4대 왕이었던 광종(925~975)이 첫 과거제도를 도입, 국가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을 뿐 태조 왕건(王健)이 통치 수단으로 도입했었던 호족(豪族, 재산이 많고 세력이 강한 집안) 제도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

국가로서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이 늘 잇따랐다.

몽골의 지배가 80년이나 되었다. 몽골 지배에 앞서도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최충현으로 이어지는 무신시대(1170~1270)가 100년이나 지속됐다. 원나라 침략이 노골화되고 남쪽엔 왜구(倭寇)가 백성을 괴롭혔다.

고려 후기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신(屍身)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반면 왕족(王族)이나 호족(豪族)의 가렴주구(苛斂誅求)는 하늘을 찔렀다. 살육전을 일삼는 몽골군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숨어든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린아이들을 나무에 묶어두고 떠나는 상황에서도 귀족(貴族)들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땅을 얼마나 뺏아들었는지 토지의 경계지점이 산(山)과 강(江)이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정도전(鄭道傳: 고려말 조선 초기시대 문신, 1342~1398) 등 민본주의(民本主義)를 부르짖는 신진사류의 역성(易姓)혁명에 따르는 것이 대세이었으나 판사공(判事公) 송고 선조는 신하가 임금을 치는데(以臣伐君) 분개하시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길을 두문동의 반대쪽에서 걸으셨다.

배위(配位) 정부인(貞夫人)은 춘천박씨(春川朴氏) 중원대부(中顯大夫) 광우(光佑)의 따님이시며 예천 용궁 절동(節洞) 염송산 신려 유좌(酉坐: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는 자리)에 합폄(合誨, 부부 합장) 됐다.

(자료출처: 태조실록太宗實錄, 예천군지醴川郡誌, 안동권씨대동보安東權氏大同譜, 판사공 묘갈서文公墓碣)

경주족친들의 국채보상운동 속보

지난 5월호 머릿 기사로 게재된 “100년이 지나 밝혀진 경주족친들의 국채보상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지원”기사에서 추가로 여러 건이 밝혀졌다.

먼저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서 오모재공(임란의병장 壬亂義兵將 휘諱 복흥復興)의 주순인 권오수權五壽(경오년庚午年 작고作故)공이 40전錢을, 같은 후손이신 권의룡 權宜龍 공이 1원을 내는 등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경주지역 단연 운동에 참여하고 매년 비슷한 액수의 의연금을 보낸 것으로 고서 자료에서 밝혀졌다.

또 국동菊洞 권씨문중權氏門中の 경우는 단연운동의 연금도 내고 모금 활동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분배기에도 올려진 기록이 추가로 확인돼 이 지역에 사는 족친들의 대한제국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실리카(Nano-Silica)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을 돕는 조이바이오입니다



조이케어 (살균·탈취제)
살균·탈취제



씨리-콤(축산생장급이수)
보조사료



씨오-팜(수용성 실리카 식물성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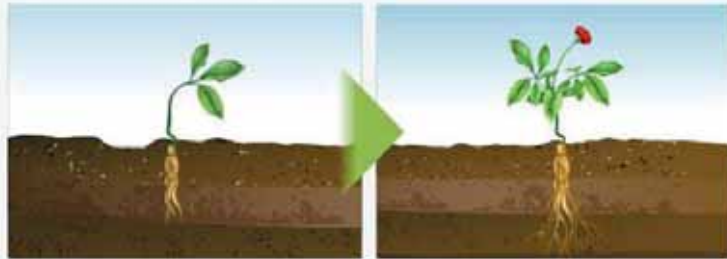
씨오-삼,인산염(수용성 실리카 식물성장제)



씨리-랜드(수용성 실리카 토양개량제)



사람, 식물, 가축, 어류에 유익한 제품을 생산하며, 안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이바이오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 이익을 누리고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조이바이오(주) 농업회사법인 전 임직원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동식물의 건강한 성장 조건과 자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이바이오는 살균/탈취제, 보조사료, 식물성장제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할 뿐 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OEM 제품)으로도 생산 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훌륭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조이바이오와 함께 동반 성장 할 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바이오(주) 농업회사법인 배상



조이바이오(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51 대표이사 / 회장 권광택
Tel : 043) 716-0073 Fax : 043) 716-0074 E-mail : jb0073@joybio.co.kr www.joybio.co.kr